

Trevor Paglen: A Color Notation

November 11 – December 24, 2022
2/3F, Pace Gallery Seoul

Opening Reception: November 10, 6–8 PM



Trevor Paglen, *Near Bodega Bay Deep Semantic Image Segments*, 2022 © Trevor Paglen

페이스갤러리 서울은 **트레버 페글렌**(b. 1974)의 개인전을 2022년 11월 11일부터 12월 24일까지 개최한다. 이번 전시에서는 컴퓨터 프로그래밍과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통해 시각적으로 변화시킨 풍경 사진 작품 13점을 갤러리 2-3층에 걸쳐 선보인다.

페글렌은 사진, 조각, 비디오, 설치와 같은 다양한 매체를 통해 감시, 데이터 수집, 군국주의 등 보이지 않는 세계와 압력을 포착하며, 이를 공학 기술 및 저널리즘을 융합하여 표현하는 예술가이다. 그의 작품은 미국 서부의 풍경부터 지구 밖을 포괄하는 범우주적 영역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자연 세계를 지각하고 이해하는 방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고찰한다. 그는 최근 몇 년간 캘리포니아에 있는 산호세 미술관(San Jose Museum of Art), 피츠버그의 카네기 미술관(Carnegie Museum of Art), 워싱턴 D.C.의 스미스소니언 미술관(Smithsonian American Art Museum), 한국의 백남준아트센터(Nam June Paik Art Center), 멕시코시티의 타마요 현대미술관(Museo Tamayo Arte Contemporáneo), 런던의 바비칸 센터(Barbican Centre)에서 개인전을 개최한 바 있다.

페글렌의 풍경 사진은 그가 만든 이미지를 다양한 컴퓨터 시스템의 분석 결과를 통해 새롭게 해석한 시각적 결과물로서 자체 개발된 맞춤형 컴퓨터 비전 시스템을 사용하여 제작되었다. 이번 개인전에서 선보이는 작품들은 작가가 2020년부터 2022년 사이에 제작한 것으로 인공지능의 프로세스를 이용해 꽃이 피는 장면을 활기차고 강렬한 텍스트로 변환한 <Bloom> 시리즈와 “고전적인” 컴퓨터 비전 알고리즘(computer vision algorithms)에 의해 생성된 선과 도형이 만들어낸 하늘 풍경 작품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때의 “고전적인” 컴퓨터 비전 알고리즘은 자율주행차, 산업 제조, 무기 시스템 및 로봇 공학 응용 프로그램에서 사용되는 기술로 이러한 알고리즘의 흔적은 미세한 선과 여러 도형들을 통해 작품에 드러난다. 또한 미국 오리건에 있는 멀트노마 폭포를 담은 두 점의 작품은 컴퓨터의 알고리즘이 보여줄 수 있는 웅장하고 초자연적인 아름다움을 담아낸다. 그 외의 작품들은 흑백 사진의 여러 가지 구성 요소를 감지하고 식별하는 인공지능 또는 머신러닝 알고리즘에 의해 분석된 것으로, 인공지능 시스템에 의해 각기 구별된 영역을 임의적인 색상으로 보여준다. 이처럼 그는 정교한 기술과 개념에 기반을 둔 작품을 통해 우리의 인식에 관한 질문을 던지고 있다.

트레버 페글렌(b. 1974)은 이미지 메이킹, 조각, 탐사보도, 글쓰기, 공학 등 여러 분야를 예술에 대한 자신만의 접근 방식으로 선보이는 예술가다. 그는 인간 시각의 범주를 탐구해온 풍경 사진, 추상화, 낭만주의, 기술의 오랜 역사와 같이 <The Black Sites>, <Other Night Sky>, <Limit Telephotography> 등의 시리즈를 통해 시각성의 한계에 대해 끊임없이 질문한다. 재현의 인식론에 관한 그의 연구는 텍스트, 비디오, 오브제 및 이미지를 활용하여 군대 문화와 언어를 둘러싼 의문들을 탐구하는 <Symbology and Code Names> 시리즈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의 주된 관심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역사적 순간을 보는 방법을 배우고 대안적인 미래를 상상할 수 있는 수단을 개발하는 것이다.

페이스는 동시대를 대표하는 세계적인 미술 갤러리로 가장 영향력 있는 현대 예술가들과 더불어 알렉산더 칼더, 장 뒤뷔페, 바바라 헵워스, 아그네스 마틴, 루이스 네벨슨, 마크 로스코 유족 및 재단과도 수십 년 간 관계를 유지해오고 있다. 페이스는 설립 초기부터 추상 표현주의와 빛과 공간 중심으로 활동하는 예술가들을 지원하면서 미국 전역을 아우르는 독보적인 갤러리로 자리매김했다.

1960년 아네 글림처(Arne Glimcher)가 설립한 이래로 예술가를 가장 우선으로 하며 역사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갤러리로 발전해 왔다. 현 마크 글림처(Marc Glimcher) 회장이 이끄는 페이스는 지속적으로 예술가들을 지원하면서, 그들의 독창적인 작업을 전시, 프로젝트, 공공 설치, 기관 간 협력, 큐레이토리얼 연구와 500여 권에 이르는 출판물 등 다양한 글로벌 프로그램을 통해 새로운 목소리를 만들어가고 있다.





또한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아트뿐만 아니라 예술가들의 다양한 실험을 지원하는 갤러리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web3 활동을 위한 Pace Verso를 출시했다.

현재 페이스는 뉴욕 첼시 25가에 위치한 두 개의 갤러리(2400여평의 전시공간과 새로 오픈한 7층 규모의 건물)를 포함해 이스트 햄튼, 팜 비치, 팔로 알토, 런던, 제네바, 홍콩, 서울까지 전 세계 9곳의 공간을 운영하고 있다. 페이스는 아시아에 최초로 진출한 국제적 갤러리로서, 베이징에 사무실과 뷰잉룸 뿐만 아니라 홍콩과 서울에 전시 공간을 운영하고 있다. 2020년부터는 이스트 햄튼과 팜 비치에 시즌별 기획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Press Inquiries

Kyungmi Kim
Gallery Assistant
kkim@pacegallery.com
+82 070 7708 7755

Follow Pace Gallery

 @pacegallery
 @pacegallery
 @pacegallery
 @pacegallery